

# 2022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초등학교 표현영역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미희\*\*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2022개정 체육과 초등학교 표현영역<br>내용의 특징        | 참고문헌        |
| III. 2022개정 체육과 초등학교 표현영역<br>내용의 문제점 및 논의 | Abstract    |

## I. 서론

2022년 12월 말 새로운 교육과정이 공시되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육과정이며 이는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로 이루어진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무용교육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보건’이라는 명칭의 체육교과에서 리듬놀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리듬놀이는 ‘노래맞추기’, ‘표현놀이’(유미희, 2009, p. 5)로 구성되어 있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춤놀이’로 명칭이 변화하며 ‘리듬놀이’, ‘표현놀이’를 지도내용으로, 그리고 3차 교육과정에서는 ‘무용’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면서 ‘민속무용’과 ‘표현무용’이 구성되었다. 4차 교육과정에서는 3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5차 교육과정에서는 ‘리듬 및 표현운동’으로 그 명칭이 변화되었다. 여기에는 이동움직임, 비이동움직임 익히기, 그리고 움직임 요소를 결합하여 단순한 춤 만들기 등이 지도내용으로 구성되는가 하면 모방표현, 즉흥표현, 상상표현이 첨부되어 모방 혹은 놀이, 움직임요소의 변화에 따르는 표현방법을 제시하였다. 6차 교육과정에서 무용은 더욱 발전된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움직임 기본요소를 익히고 결합하여 춤 만들기, 느낌이나 상상으로 움직임 표현하기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유미희, 2009, p. 10). 7차 교육과정에는 ‘표현활동’ 영역으로 분류되면서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표현’, ‘주제표현’을 지도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는 2007개정, 2009개정, 그리고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동일하다. 초등무용교육은 이처럼 명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핵심개념이 제시되면서 영역별 특성을 강조하였다.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terpsi2001@ginue.ac.kr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용은 체육교과의 3가지 영역, ‘운동’, ‘움직임’, ‘표현’ 중 ‘표현’영역으로 구분된다. 그간 ‘리듬’, ‘놀이’, ‘표현’, ‘운동’ 등으로 개념화된 무용이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유영역을 유지하고 있다.

2022개정 교육과정은 새로운 모습으로, 그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개편되었다. 2022개정 교육과정 초등 체육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지영·김수연(2022), 윤기준(2022), 이유리·오세복(2022), 최효근(2022), 탁지현(2022), 김정미(2023), 신원규·한동수·이주욱(2023), 이강순(2023), 정현우(2023), 고문수(2023), 박혜연(2023), 이정연·유영임(2023)의 연구가 있다. 박지영·김수연(2022)은 2022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역량기반 융합체육수업의 실천방안을 메타버스 교육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윤기준(2022)은 2022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지원 방안을 탐색하였고 최효근(2022)은 2022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한 현행 초등 체육교과서 인식 및 활용실태를 탐구하였다. 신원규·한동수·이주욱(2023)은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2015와 2022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였는가 하면 고문수(2023)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적절한 초등체육과 예비교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중 초등무용관련연구는 김정미(2023), 이유리·오세복(2022), 이강순(2023), 탁지현(2022), 박혜연(2023), 이정연·유영임(202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정미는(2023) 2022개정 초등체육과 표현 영역의 성취기준과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그 실행과 교수학습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고 이유리·오세복(2022)은 2022개정 초등체육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무용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강순(2023)은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표현영역에 제시된 신체활동 예시와 성취기준을 탐색하였고 탁지현(2022)은 2022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초·중등 학교무용교육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 보았다. 박혜연(2023)은 2022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교무용교육의 변화를 탐색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LCI(Lincoln Center Institute) 교수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정연·유영임(2023)은 2015개정 교육과정과 2022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초·중등표현활동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그 장단점을 제시하고 신체 표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이용한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 발휘, 통합예술적 접근 및 다매체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2022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된 무용교육을 탐색하고 그 활성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초·중등 무용교육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용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 역시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발전적 시안 마련에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는바,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2022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초등학교 표현영역의 내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한 후 향후 바람직한 초등무용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2022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초등학교 표현영역 내용의 특징

### 1. 신체활동 형식으로서의 표현영역 내용체계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1에 제시된 「체육과 교육과정」 설계에 의하면 체육과는 세 가지 신체활동역량을 통해 체육과가 추구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움직임 수행역량’, ‘건강관리역량’, 그

리고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으로, 이 세 가지는 신체활동역량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건강하며 주도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기초소양이 된다. 이 중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은 표현영역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역량이다.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은 “다양한 신체활동 문화를 전 생애 동안 즐기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각 신체활동 형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류가 축적한 문화적 소양을 내면화하여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면서 길러진다.”(교육부, 2022, p. 3)

신체활동형식으로서 초등학교 표현활동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초등학교 체육과 표현영역 내용체계(교육부, 2022, p. 9)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 활동은 인간이 신체 움직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담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예술적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li> <li>표현 활동은 기본 움직임에 표현 원리가 적용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구현되며 구성 및 창작의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li> <li>인간은 다양한 표현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움직임의 심미적 가치를 내면화 하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한다.</li> </ul>	
	내용 요소	
	초등학교	
	3-4학년	5-6학년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 활동과 움직임 기술</li> <li>기본 움직임 기술의 표현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 활동의 유형</li> <li>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방법</li> <li>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구성</li> </ul>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 활동의 움직임 기술 파악하고 시도하기</li> <li>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임 기술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 활동의 유형 파악하기</li> <li>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방법 활용하기</li> <li>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구성하고 발표하기</li> </ul>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움직임 표현에 대한 호기심</li> <li>움직임 표현에 대한 감수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표현 활동 유형에 대한 수용적 태도</li> <li>움직임 표현의 심미성 추구</li> </ul>

<표 1>에 제시된 표현영역의 핵심아이디어는 생각과 감정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삶을 형성하고 예술적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용요소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범주로 제시되었다. ‘지식·이해’는 각 내용영역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나 원리이며, 이 개념이나 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활동방법 등을 의미한다. ‘과정·기능’은 ‘지식·이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며 ‘가치·태도’는 표현활동 수행을 통해 결과적으로 습득하는 성품, 바람직한 인성을 의미한다(교육부, 2022, p. 4)

2022개정 교육과정 내용해설에 의하면 ‘신체활동형식(forms of physical activity)’이란 “신체활동을 참여 목적이나 방식 등에 따라 가장 상위수준에서 분류한 개념으로 기본 움직임(fundamental movements), 놀이(play), 운동(exercise), 스포츠(sport), 표현(dance), 무예(martial arts), 여가활동(leisure) 등으로 분류된다”(교육부, 2022, p. 117). 즉,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그 목적과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 범주로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와 표현은 신체활동 하위 범주인 기본 움직임 기술을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비이동 기술, 이동 기술, 조작 기술은 기본 움직임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표현활동 3-4학년에서 신체활동 형식의 하나로 기본움직임기술과 그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시도하며 익히는 것으로, 5-6학년에서는 유형별 움직임기술을 이해하고 구성하며 응용,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움직임 표현에 대한 호기심, 감수성, 그리고 심미성 등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 2. 기본 움직임 표현과 다양한 유형의 표현활동

초등학교 3-4학년군과 5-6학년군 표현영역의 성취기준과 신체활동예시를 살펴보면 3-4학년군은 기본 움직임 표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5-6학년군은 여러 가지 형태의 움직임 표현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3-4학년군의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교 3-4학년군 표현영역 성취기준(교육부, 2022, p. 14)

[4체03-01]	표현활동의 의미와 기본 움직임 기술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체03-02]	움직임 요소에 따른 기본 움직임 기술의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시도한다.
[4체03-03]	기본 움직임 기술을 활용하여 사물이나 자연을 모방하여 표현한다.
[4체03-04]	기본 움직임 기술을 활용하여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한다.
[4체03-05]	기본 움직임 기술을 리듬에 맞춰 표현한다.
[4체03-06]	기본 움직임 기술을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4체03-07]	움직임의 심미적 표현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을 나타낸다.

위의 표에 의하면 표현활동은 기본 움직임 기술과 움직임 요소를 이용하여 사물이나 자연을 모방, 표현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 또한 리듬에 맞추어 표현할 뿐 아니라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움직임의 심미적 표현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표 3>과 같은 신체활동예시가 제시되었다.

<표 3> 초등학교 3-4학년군 신체활동 예시(교육부, 2022, p. 17)

영역	세부영역	신체활동 예시
표현	기본 움직임의 기초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움직임 표현(워킹, 점핑, 호핑, 스키핑, 갤러핑, 리핑, 슬라이딩 등)</li> <li>• 비이동 움직임 표현(떨기, 접기, 비틀기, 제자리 돌기, 털기, 흔들기 등)</li> <li>• 조작 움직임(들기, 돌리기 등)</li> </ul>
	기본 움직임의 표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상 표현(언어표현, 느낌이나 생각 표현하기 등)</li> <li>• 모방 표현(사물 표현, 인물 표현, 자연 현상 표현하기 등)</li> <li>• 리듬 표현(박자, 강약, 빠르기, 패턴에 따라 표현하기 등)</li> <li>• 도구 표현(줄, 공, 천, 홀라후프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등)</li> </ul>

3-4학년군의 표현영역은 크게 기본 움직임의 기초표현과 기본 움직임의 표현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기본 움직임의 기초 표현은 이동 움직임 표현, 비이동 움직임 표현, 그리고 조작움직임으로, 움직임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 단계이다. 이동움직임 표현은 공간을 이동하는 것으로 단순스텝과 복합

스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7개의 스텝, 즉, 워킹, 점핑, 호핑, 스키핑, 깎러핑, 리핑, 슬라이딩 등을 제시하였다. 비이동움직임은 공간의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하는 움직임 표현, 즉, 퍼기, 접기, 비틀기, 제자리 돌기, 털기, 흔들기 등 6개의 움직임 표현이 제시되었으며, 조작움직임은 줄, 공, 천, 홀라후프 등, 다양한 도구를 들고 이루어지는 들기와 돌리기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기본 움직임의 표현방법은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추상표현, 모방표현, 리듬표현, 그리고 도구표현이다. 추상표현은 언어,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 모방표현은 사물, 인물, 자연현상의 모방을 통해 표현하는 것, 리듬표현은 박자, 강약, 빠르기, 패턴에 따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도구표현은 줄, 공, 천, 홀라후프 등, 도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한편 5-6학년군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초등학교 5-6학년군 성취기준(교육부 2022, p. 23)

[6체03-01] 표현활동의 의미와 유형을 파악한다.
[6체03-02] 스포츠 표현에서 움직임 기술을 응용한 기본동작을 파악하고 표현한다.
[6체03-03] 스포츠 표현의 기본동작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발표하고 감상한다.
[6체03-04] 전통 표현에서 움직임 기술을 응용한 기본동작을 파악하고 표현한다.
[6체03-05] 전통 표현의 기본동작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발표하고 감상한다.
[6체03-06] 현대 표현에서 움직임 기술을 응용한 기본 동작을 파악하고 표현한다.
[6체03-07] 현대 표현의 기본 동작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발표하고 감상한다.
[6체03-08] 다양한 표현 활동 유형을 수용하고, 움직임 표현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5-6학년군의 성취기준은 표현활동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스포츠 표현, 전통 표현, 그리고 현대 표현 같은 다양한 유형의 표현활동을 수용하고 움직임 표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신체활동 예시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초등학교 5-6학년군 신체활동 예시(교육부, 2022, p. 26)

영역	세부영역	신체활동예시
표현	스포츠 표현 활동	• 창작체조 활동, 음악줄넘기 활동 등
	전통 표현 활동	• 우리나라의 민속무용 활동, 외국의 민속무용 활동 등
	현대 표현 활동	• 라인댄스 활동, 댄스 스포츠 활동, 스트리트댄스 활동 등

표현유형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표현 형식의 세부 활동을 묶은 것으로 스포츠 표현, 전통 표현, 현대 표현으로 구분된다”(교육부, 2022, p. 118). 5-6학년군의 표현영역은 ‘활동유형’, 혹은 ‘표현 유형’으로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포츠 표현 활동, 전통 표현 활동, 그리고 현대 표현 활동이라는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세부영역에 따른 신체활동 예시를 살펴보면 스포츠 표현활동은 창작체조 활동과 음악줄넘기 활동 등으로 스포츠에 존재하는 활동유형, 전통 표현 활동은 전통적인 표현에 집중된 우리나라 민속무용과 외국의 민속무용 활동, 그리고 현대 표현 활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유형으로서

라인댄스 활동, 댄스 스포츠 활동, 스트리트 댄스 활동 등이 제시되어 여러 가지 형태의 움직임 표현에 관련된 활동을 익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III. 2022개정 체육과 초등학교 표현영역 내용의 문제점 및 논의

#### 1. 심미성에 기초한 무용의 오(誤) 개념인식

2022개정 교육과정 표현영역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성취기준(〈표 2〉, 〈표 4〉 참조)을 살펴보면 ‘움직임의 심미적 표현’, ‘움직임 표현의 아름다움’이 반복됨을 볼 수 있다. 다음 〈표 6〉 3-4학년군 성취기준 해설을 참조해보면 심미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 초등학교 3-4학년군 성취기준 해설(교육부, 2022, pp. 14-15)

[4체 03-01]은 표현 활동의 의미, 표현 활동과 기본 움직임 기술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표현 5-6학년군의 표현영역활동에서의 움직임 기술과 운동 및 스포츠 영역에서의 움직임 기술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표현 활동에서 움직임 기술의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4체 03-02]는 움직임 요소에 따른 다양한 기본 움직임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표현활동의 기본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을 체험하되 신체, 노력, 공간, 관계 등 움직임 요소의 변화에 따라 기본 움직임 기술을 창의적이고 **심미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4체 03-07]은 움직임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을 갖도록 설정하였다. 기본 움직임 기술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움직임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자극에 관심을 갖고 운동이나 스포츠 기술과는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성취기준 해설 [4체 03-01]에 의하면 운동 및 스포츠 영역에서의 움직임 기술과 표현활동에서의 움직임 기술의 차별성을 심미적 특성에 두고 있다. 즉, 운동 및 스포츠 영역과는 다르게 표현영역에서의 움직임은 기본움직임 기술을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움직임 기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미성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6〉 5-6학년군 성취기준 해설서에서도 지속해서 등장한다.

〈표 7〉 초등학교 5-6학년군 성취기준 해설(교육부, 2022, pp. 23-24)

[6체03-01]는 표현 활동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스포츠에서 신체 **움직임의 심미성**을 다루는 스포츠 표현,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한 전통표현, 자유로운 형식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현대 표현의 유형별로 다양한 작품을 작-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기본 동작과 구성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6체03-02]는 스포츠 표현의 기본 움직임 기술과 응용 동작을 탐색하고 **심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신체활동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스포츠 표현의 기본동작에 적합한 움직임 기술의 응용 동작을 **심미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6체03-03]은 스포츠 표현에 적합한 움직임 기술의 응용 동작을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표현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스포츠 표현에 적합한 움직임 기술의 응용 동작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개인 또는 모둠별로 간단한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며 작품의 의도와 동작의 **심미성**을 감상하도록 한다.

[6체03-08]은 다양한 표현 활동 유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움직임 표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설정하였다. 다양한 표현 유형에 담긴 의미와 표현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탐색하며 표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움직임 표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5-6학년 표현영역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을 경험하고 주제와 관련된 일련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표현의 가치를 이해하고 표현에 대한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적(교육부, 2015, p. 4)으로 하였다. 신체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타인의 표현을 공감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신체표현능력이었다. 즉, 움직임을 통해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주제로 표현하는 능력, 표현된 것을 심미적,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다양한 현상이나 사물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움직임 표현에 관련된 모든 표현이 ‘심미적’이라 명명하면서 뚜렷한 설명 없이 ‘심미적 표현’으로 표현활동을 규정짓고 있다. 위의 <표 6>와 <표 7>의 성취기준해설에 의하면 움직임 기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기본움직임 표현에서도, 그리고 스포츠 표현에서도 심미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22년도 한국초등체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2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시안 발표가 있었고 당시 시안에 제시된 표현활동의 ‘심미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된 바가 있다.<sup>1)</sup> 각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모든 것을 ‘심미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개발자의 의견은 ‘심미성(審美性)’ 자체가 담고 있는 개념에 의문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심미성 개념’ 강조로 무용은 무조건 아름다워야 하며, 미적 형태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양산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심미성은 필요하다. 예술의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심미성은 “미적 경험의 내면화를 통해 심미적 차원으로 세상과 조우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진정한 행복 추구”(김설리, 조남규, 2019, p. 70)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심미적’이어야 하는가? 생각과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며, 이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표현의 핵심아이디어가 “다양한 표현활동 체험으로 움직임의 심미적 가치를 내면화하며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교육부, 2022, p. 9)하는 것이라면, 개발자의 확대된 개념으로 심미성을 강요하기보다는 보편적 용어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자유로운’, ‘창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움직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미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과심미화’, ‘표면적 심미화’로 빠질 우려가 있다. “표면적 심미화는 현실을 그저 이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선함의 유기적 결합이 없는 표면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기에”(이유리, 오세복, 2023, p. 50) 표현활동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강순의 연구(2023)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다.

즉, 체육교과 안에서의 심미적 표현이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움직임 표현, 그 자체와 창작 표현과 무용의 다양성, 예술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이강순, 2023, p. 68), 적용

1) 초등무용교육에서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름답다는 것은 자칫 무용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2022년 5월 4일, ○○○교수 질문, 개인적 기억자료)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자유롭게 어떤 생각이든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2022년 5월 4일, ○○○ 답변, 개인적 기억자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용은 신체 표현 활동을 통해 신체능력을 확장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자율성과 주체성을 획득하는 것(김설리, 조남규, 2019, p. 68)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2. 스포츠 표현, 부적절한 범주화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은 운동, 스포츠와 함께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표 5> 초등학교 5-6학년군 신체활동 예시에 의하면 표현활동은 스포츠 표현 활동, 전통 표현 활동, 현대 표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스포츠 표현 활동’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초등학교 내용에 의하면 체육과는 운동, 스포츠, 표현을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2022, p. 3). 운동과 더불어 스포츠 영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스포츠가 ‘스포츠 표현’이란 이름으로 표현영역의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의 3,4학년군 성취기준해설 [4체03-01]에 의하면 운동 및 스포츠 영역의 움직임 기술과 표현활동의 움직임기술의 차이를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특성에 두고 있고 <표 7> 5,6학년군 성취기준 해설 [6체03-01]에서도 신체움직임의 심미성으로 스포츠 표현의 범주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움직이면 모두 표현활동이라 할 수 있는가? 신체활동 예시로 제시된 창작체조 활동과 음악줄넘기 활동을 아름다운 표현활동이라 할 수 있는가? 2022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용어에 의하면 신체활동 형식으로 ‘표현’은 ‘dance’로 명명되었다. 스포츠 표현은 “스포츠에서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표현활동으로 스포츠에 존재하는 움직임의 원리와 예술성 등을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유형이며, 창작체조, 리듬체조, 음악줄넘기, 피겨스케이팅 등이 해당된다”(교육부, 2022, p. 117)고 기술하고 있다. 스포츠 표현이 ‘dance’가 될 수 있는가? 창작체조와 음악줄넘기, 리듬체조, 피겨스케이팅을 언제부터 ‘표현’, ‘dance’라 하는가?

스포츠 영역이 있다면 이 예시들은 스포츠 영역으로 범주화되어야 한다. 창작체조, 리듬 체조, 음악 줄넘기, 피겨스케이팅에서 예술성은 부차적인 항목이다. 스포츠의 중심은 능숙한 기술을 통한 기록갱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창작체조와 음악줄넘기는 조남규·김유진(2018)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무용에서 추구하는 예술적 심미성을 확대, 적용하기 어렵고 체조와 무용을 혼동할 오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스포츠 표현으로 표현활동을 범주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용을 통한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 3. 창작표현의 축소와 무분별한 신체활동예시

<표 3> 초등학교 3-4학년군 표현영역 신체활동예시에 의하면 기본움직임의 기초표현과 표현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기본움직임의 기초표현에는 기본 움직임 기술이 제시되었으며 이동움직임, 비이동움직임, 조작움직임이 이에 속한다. <표 6> 초등학교 3-4학년군 성취기준 해설 [4체03-02]에 의하면 기본 움직임 기술은 신체, 노력, 공간, 관계 등 다양한 움직임 요소를 변화시켜 창의적이고 심미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고 이런 기본움직임 기술은 추상, 모방, 리듬, 도구를 이용해 표현하도록 하였다.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창작표현은 3-4학년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5-6학년군은 표현활동



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4〉 초등학교 5-6학년군 성취기준을 참조해 보면 스포츠 표현, 전통 표현, 현대 표현의 기본동작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발표, 감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 표현 활동이나 현대 표현 활동의 신체활동 예시는 모두 문화적 표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전통 표현은 체육과교육과정 용어해설에 의하면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민속무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이고 예술적인 표현 동작 또는 유형을 의미하며 민속무용(탈춤, 부채춤, 플라멩코 등), 궁중무용(춘앵전, 향발무, 발레 등)이 이에 해당된다”(교육부, 2022, p. 118)고 기술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표 7〉 초등학교 5-6학년 성취기준 해설은 표현활동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스포츠 표현에서는 신체움직임의 심미성을, 전통 표현에서는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그리고 현대 표현에서는 자유로운 형식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유형별로 다양한 작품을 체험함으로써 표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움직임 표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포츠 표현, 전통 표현, 그리고 현대 표현 모두 각각 기본동작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발표, 감상하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창작적 체험이나 창의적 활동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가지 양식의 춤을 익히고 이를 변형시키는, ‘창작(creation)’보다는 ‘재구성(reconstruction)’에 가깝다. 재구성도 창작의 한 방법이기 는 하나 창작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재구성이란 원작을 전제로 한다. 원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작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 내면화 과정을 거쳐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재구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구성도 창작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5-6학년군 표현활동의 성취기준이나 신체활동예시는 모두 순수한 창작이라기보다는 재구성에 가깝다. 5-6학년군 표현활동은 표현활동 유형별 움직임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표현을 수용하는, 즉, 문화의 다양성 파악에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민속표현의 일종으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주제표현”(교육부, 2015, p. 25)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창작표현은 기본 움직임과 움직임 요소에 기초하는 3-4학년군의 표현활동에 한정되어 있어 신체활동을 다각적으로 경험하고 성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체육과 교육과정 용어해설에서 전통 표현예시가 잘못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 표현 예시로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민속무용은 탈춤, 부채춤, 플라멩코, 그리고 궁중무용은 춘앵전, 향발무, 발레를 예로 들고 있다. 이중 부채춤과 발레는 잘못된, 부적절한 예시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부채춤은 ‘신무용계열에 속하는 창작무용’(https://encykorea.aks.ac.kr, 부채춤)이다. 민속무용이 아닌 ‘신무용’, 즉, ‘창작된 춤’이다. 부채춤은 1954년 무용가 김백봉에 의해 창작된 춤으로 전통적인 궁중무용과 전통음악을 차용하여 부채를 들고 화려하게 탄생한 춤이다.

신체활동 예시는 표현활동의 내용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기준이 된다. 무용학적 연구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춤 레퍼토리는 초등학교사와 초등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춤의 형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춤 문화 자산의 가능성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 신체활동예시로 제시된 부채춤은 민속무용이 아니다. “민속(民俗)이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마다 고유하게 전해 내려오는 생활양식이나 풍습, 미신, 속담과 민담과 전설, 신화를 포함한 구전문학, 그리고 음악, 무용 등의 문화 양식을 한데 묶어 이

르는 말이다...민속은 민족 생활의 독자성을 반영하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그 민족의 문화생활에 이바지해왔다. 그것이 민중들의 사고, 언어, 행동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유형, 무형의 일체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속은 민간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생활풍습을 모두 포괄한다”.(https://ko.m.wikipedia.org, 민속) 민속의 핵심은 민간생활과 연결된 것이다. 모든 문화가 아닌, 기층문화, 민중, 서민들의 문화에 초점이 담긴 문화이다.

또한 발레는 궁중무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발레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귀족들 사이에서 추어지던 춤으로 16세기 프랑스로 전파되었고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발전된 서양의 대표적인 춤의 형태이다. 궁정에서 그 연원과 후원에 힘입어 발전한 춤이며 왕이나 왕비를 위해 추어진 춤이 아닌, 귀족들의 교양으로 추어진 춤의 하나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실용무용이다. 실용무용은 K-pop의 유행과 함께 대중미디어를 통해 현재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대 표현으로 제시된 라인댄스, 댄스 스포츠, 스트리트댄스는 모두 실용무용이다. 실용무용이란 평생교육의 하나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춤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무용, 사회무용이다. 라인댄스는 말 그대로 ‘line’, ‘열’을 맞추어 추는 춤으로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한 country& western dance이다. 비교적 간단한 스텝으로 공간적인 변화를 주며 4개의 벽을 이용해 방향을 바꾸며 추는 춤이다. 댄스 스포츠는 오래된 형식의 춤으로 1990년대 전후로 한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춤이다. 한편, 스트리트댄스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길거리 문화에서 탄생한 춤이다. 브레이크, 팝핑, 락킹, 왁킹, 힙합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춤은 모두 대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비전문가와 일반인이 출수 있는 춤의 형태로 20세기~ 21세기 현재의 사회문화적 형태를 반영한 춤이다. 이는 방송을 통해 대중들이 열광하는 춤의 하나이다.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흥행 이후 춤은 예능의 주요소재가 되었다. ‘쇼다운’, 국내 댄서들이 스트릿 댄스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댄스 버스킹을 하는 ‘플라이 투 더 댄스’, 그리고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 등 예능프로그램의 흥행은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관심과 확산을 촉진했다.

예술성보다는 미용, 건강, 여가 등의 실용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라인댄스, 댄스 스포츠, 그리고 스트리트댄스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유용한 춤의 형태이다. 그러나 움직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지도나 아동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조남규·김유진(2018)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칫, 초등학교 무용교육이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만으로 수업을 계획, 진행, 평가하는 것이 어렵게 되거나(48.3%), 무용수업시 장애요인으로 무용지도능력부족(39.7%)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

또한 초등무용교육에서 표현활동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유로운 움직임 표현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대 표현으로 제시된 춤의 형태는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가 또 다른 기능적 숙달이 필요하다. 즉, 실용무용은 “창작을 위한 무용 영역이라기 보다는 규격화된 형식과 반복적이고 단계적인 수행을 통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리드미한 음악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흥미를 유발하여 생활속 실천을 도모하는 특징”(이윤경, 조미혜, 2016, p. 45)을 반영하고 있다. 이강순의 연구(2023)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현대표현으로 제시된 신체활동에서는 표준화된 장르로서 실용무용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명확한 검토, 그리고 이에 맞는 적절한 예시설풀이 필요하다.

#### 4. 부적합한 용어사용

3-4학년군과 5-6학년군 성취기준에 의하면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기본 움직임’과 ‘기본 움직임 기술’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술’이라는 용어사용이 꼭 필요한 것인가?

기술(skill)의 사전적 의미에서는 ‘사물을 잘 다루는 방법’, 혹은 ‘능력’을 의미한다. 영어로 ‘skill’의 개념은 ‘기술’, ‘솜씨’, ‘능력’ 등을 나타내는 말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제, 혹은 스포츠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수 능력이나 훈련을 통해 얻은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이란 훈련을 통해 습득한,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에서 언급되는 기본움직임기술이란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의 한 요소이다.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란 ‘physicalness’와 ‘literacy’의 합성어로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의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피지컬 리터러시는 기본움직임기술(Fundamental Movement Skills)과 기본스포츠기술(Fundamental Sports Skills)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박세원, 김영식, 2021, p. 270). 갈라휴(Gallahue)에 의하면 기본움직임기술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신체의 균형을 포함한 안정성 기술(stability ability), 신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기술(locomotion skill), 그리고 물체에 힘을 주어 보내거나 받는 조작성 기술(manipulative skill)이다. 2022개정 체육과 초등학교 3-4학년군 신체활동예시에 의하면 스포츠 영역은 기본움직임기초기술로 이동움직임(방향 전환 달리기, 뛰기, 구르기, 물에서 이동하기 등), 비이동움직임(균형잡기, 구부리기, 회전하기, 물에 뜨기 등), 조작움직임(던지기, 굴리기, 차기, 잡기, 치기, 튀기기, 물기, 타기 등)을 제시하였다. 스포츠를 효율적으로 능숙하게 수행하려면 기본움직임기술의 학습과 습득은 필수적이다. 기록, 규칙, 게임, 경쟁 등 양적 수치, 즉, 기록갱신과 점수획득이 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스포츠에서 기능적인 탁월함과 기술습득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신체움직임에 생각과 감정을 담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표현활동에서 기술습득이 필수적인가? 표현활동을 위해 기본움직임을 학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움직임이 능숙하지 못하면 표현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뛰어난 테크닉이나 탁월한 기량습득이 목적이 아닌 표현활동에서 기술이란 개념을 꼭 사용해야 하는가? 기술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것인가? 다양한 구현, 창의적인 표현을 기대하는 표현원리에서 기술적 능숙함이 필수적인 것인가? 이러한 개념의 사용은 자칫 기능적인 탁월함이 전제되어야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표현활동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개정 체육과 초등학교 표현영역 내용을 분석, 검토하였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초등학교 표현영역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2022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초등학교 표현영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친 심미성의 강조로 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초등학교 3-4 학년군과 5-6학년군의 성취기준 및 그 해설에 의하면 운동 및 스포츠와 표현의 차이를 심미성에 두고 있다. ‘심미적인 표현’, ‘움직임의 심미성’, ‘심미적 가치’ 등을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에서 연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2015개정과는 많은 차별성을 보인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과의 목표를 “표현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신체 표현을 수행하며 심미적 안목을 갖는다.”(교육부, 2015, p. 7)에 두었다. ‘심미성’, 또는 ‘심미적인 안목’은 체육과의 목표와 내용체계에만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심미성’ 관련용어는 성취기준과 그 해설서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표현은 꼭 아름다워야 하는가? 예술의 심미성은 예술의 보편적 특성으로 인간이 자연을 비롯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느끼고 타인과 공감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삶을 누리는 원동력이 된다. 표현활동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심미성’이나 ‘심미적인 안목’은 무용의 표현성에 기초한 예술활동의 결과이며 가치이다. 표현과정이나 방법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되어야 할 학습방법이 아니다. 심미성 강조는 무용은, 표현은 무조건 아름다워야 한다는 잘못된 개념을 양산할 수 있으며 자칫 초등무용 교육이 가장 지양해야 할 강요된 학습으로 나아갈 우려를 낳는다.

둘째, 5-6학년 표현영역으로 스포츠 표현을 범주화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운동, 스포츠, 표현, 이 세 가지 영역은 각 영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스포츠 표현으로 예술성을 강요해서 표현영역으로 범주화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셋째, 창작표현이 축소되었고 무분별한 신체활동예시와 부정확한 용어사용이 나타났다. 3-4학년군 신체활동예시는 기본움직임의 기초 표현과 표현방법이 제시되었고 5-6학년군 신체활동예시는 스포츠 표현 활동, 전통 표현 활동, 현대 표현 활동이 제시되었다. 3-4학년군은 주로 기본움직임의 표현과 창작에 집중되었고 5-6학년에는 표현유형에 집중됨을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표현 활동 예시로 라인댄스 활동, 스포츠 댄스 활동, 스트리트 댄스 활동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대 표현 활동 예시는 모두 실용무용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대적, 대중적 여세를 고려하여 실용무용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개성 있는 현대 표현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이고 단계적 학습을 요하는, 건강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는 춤이다. 즉, “창작보다는 감성적 움직임 수행에 초점”(이윤경, 조미혜, 2016, p. 45)을 둔 활동이다. 움직임 기술의 표현 능력, 작품의 구성과 감상, 그리고 타인의 작품과 공감, 소통을 추구하는 능력 등은 움직임 창작에 대한 이해, 실천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과 심화된 학습활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움직임 창작에 대한 보다 심화된 내용이 5-6학년군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별 움직임 표현과 창작, 그리고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통 표현 일부 예시가 부적합하며 현대 표현 활동은 기존의 표준화된 장르적 개념으로서 ‘실용무용’으로의 용어 변경과 더불어 보다 적절한 활용 예시가 필요하다.

넷째, ‘기술’이라는 부적합한 용어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기능적이고 전략적인 의미의 ‘기술’이란 용어는 창의성에 기초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의 터득을 위한 표현활동에 부적합한 용어이다. 기능적인 탁월함이나 기술적인 전략 없이도 상상과 공감을 통해 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이고 ‘무용’이며 ‘예술’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기본 지침서이다. 특히 교사나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활동의 구성은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결과 나타난 일련의 문제점들은 “교육내용 선정과 조

직의 변화, 설계 방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한 준비와 안내, 시간”(임유나, 2023, p. 764)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 전문성을 지닌 무용전문가와 무용교육자의 개발진 구성, 그리고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공동연구가 절실하며,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한 보다 발전적 시안 개발이 필수적이다.

## ■ 참고문헌

- 김정미(2023). 2022개정 교육과정의 초등무용교육 내용 체계 분석. **한국체육무용과학회**, 3(1), 67-79.
- 김설리, 조남규(2019). 샤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과 에릭슨의 자아정체성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의미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55, 57-73.
- 박세원, 김영식(2021). 미국 체육과 교육과정의 기본움직임기술(FMS) 관련 성취기준 분석 및 시사점 탐색:초등체육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269-284.
- 박지영, 김수연(2022).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역량 기반 융합체육수업 실천 방안 탐색:메타버스 교육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593-610.
- 박혜연(2023). 학교무용교육의 변화와 실천적 교수모형 탐색: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6(3), 149-167.
- 신원규, 한동수, 이주옥(2023).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체계에 의한 2015와 2022 중학교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2(3), 71-85.
- 유미희(2009). 한국 무용교육의 변천과 과제:해방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2), 1-27.
- 윤기준(2023). 교사의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이해 지원 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6(2), 107-124.
- 이강순(2023). 2022 개정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 신체활동 예시 및 성취기준 탐색. **교육논총**, 43(2), 61-71.
- 이유리, 오세복(2022). 2022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초등무용교육의 주요과제. **한국체육무용과학회**, 2(2), 47-54.
- 이윤경, 조미혜(2016). 초등무용교육과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3), 25-50.
- 이정연, 유명임(2023). 2015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표현활동 비교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93(4), 137-151.
- 임유나(2023). 2022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에대한 비판적 검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8), 747-768.
- 정현우(2023). 스포츠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내용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0(1), 1-20.
- 탁지현(2022). 2022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교무용교육의 변화와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4), 21-39.
- 최효근(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한 현행 초등 체육교과서 인식 및 활용실태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5), 57-71.
- 고문수(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체육과 예비교사 교육의 방향. **우리체육**, 29, 13-19.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1],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1], **체육과 교육과정**.  
<<https://ko.m.wikipedia.org>, 민속, 2024. 02. 01.>.  
<<https://encykorea.aks.ac.kr>, 부채춤, 2024, 01. 30.>.

논문투고일 2024. 02. 15.  
심사일 2024. 02. 27.  
심사완료일 2024. 03. 10.

## A Critical Review of 2022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Expression Area Content

Yoo, MI-HEE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esirable elementary dance curriculum revision in the future. For thi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ontents of expression areas of the 2022 revised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xcessive emphasis on aesthetics can create a false perception of dance.

Second, it is inappropriate to categorize sports expressions into the 5th and 6th grade expression areas.

Third, creative expression is reduced, and indiscriminate physical activity examples and inaccurate terms were used.

Fourth, the use of the inappropriate term, 'skill' should be avoided.

Keywords: 표현(expression), 무용(dance), 초등체육(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2022개정 교육과정(2022 revised curriculum),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